

여대생 군화발 구타... 물대포에 부상 속출...

‘촛불 시위’ 과잉 진압 논란 격화

경찰이 서울대 여학생을 군화발로 구타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 공개되고 물대포로 인한 부상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경찰의 촛불 집회 과잉진압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촛불 집회 시위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기조를 유지키로 해 반발이 커지고 있다.

◇경찰 과잉진압 논란=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은 지난 1일 새벽 경찰의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의 군화발에 머리를 쾀쳐당한 서울대 이모(21)양의 동영상 인터넷상에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인터넷에는 경찰이 진압 도중 폭력을 행사하는 사진과 동영상 급속히 퍼지면서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특히 경찰의 군화발에 짓밟힌 이양

이 2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동영상에 찍힌 것 이외에 경찰 버스 밑에서 나온 뒤 경찰의 추가 폭행이 있었다”고 밝히면서 네티즌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또 경찰이 쓴 ‘물대포’와 경찰이 휘두른 방패에 고막이 터지고 안구 손상을 입는 등 부상자가 속출하면서 경찰의 물대포 사용기준 위반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장비관리규칙”은 진압장비 가운데 방패와 진압봉·근접분사기·가스차·살수차 등을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장비로 분류하고 사용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주말에는 경찰이 가까운 거리의 시위대에 거의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물대포를 쏘는 광경이 목격

됐고, 여기에 맞아 다쳤다는 시민들의 주장이 이어지는 등 경찰이 규칙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2일 경찰의 물대포 사용 등 과잉진압으로 1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쳤다면서 “피해자들을 모아 정부와 경찰을 상대로 고소·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3~4명 구속영장 검토=경찰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 거리시위에 참가했다가 연행된 시위자 중 과격 불법행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3~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2일 밝혔다.

‘촛불시위’ 과정에서 경찰이 시위가 담자에게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이들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그러나 서울대 여학생 구타 장면 동영상에 대해 감찰 조사를 벌인 뒤 사실인 경우 관련 경찰을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1일 오후부터 2일 새벽까지 이틀째 거리시위를 벌인 시민 중 78명을 연행해 이중 중환자 1명을 석방하고 나머지 77명을 서울 시내 7개 경찰서로 분산해 조사중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날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관련 시위에서 545명을 연행했으며 이중 ▲211명은 불구속입건 ▲21명은 즉시 회부 ▲14명은 훈방했고, 299명은 구금 상태에서 계속 조사를 받고 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면세유 불법유통 수협 직원 등 63명 적발

초고유가 시대를 틈타 어업용 면세유를 불법유통시킨 주유소 업자와 수협 직원 등 63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여수해경은 2일 어업용 면세유를 빼돌려 판매한 주유소 주인 김모(54)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혐의로, 어민들에게 면세유를 부당 공급한 수협직원 박모(34)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주유소 주인과 어민, 수협직원등 63명을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 초 고흥 자신의 주유소에서 면세경유 1천450ℓ를 빼돌려 파는 등 200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씨는 올 3월까지 고흥지역 미역 가공업체에 면세경유 2만2천ℓ(3천여만 원 상당)를 적정량보다 초과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수해경은 지난 4월11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특별 단속을 벌여 면세유를 불법유통시킨 주유소 주인과 어

민, 수협직원 등 63명을 적발했다. /여수=박양규기자 ypkp@

고속도 부상자 구하러다 목사, 차에 치여 숨져

친구 어머니 조문을 가던 목사가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장에서 부상자를 구하러다 숨졌다.

대전의 기쁜영현교회 이공열(43·대전시 동구) 목사는 지난 1일 오후 8시20분께 순천시 서면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서순천 나들목 진입하러다 사고를 당했다.

아내, 아들을 태우고 순천의 장례식장으로 가던 이 목사는 차에서 내려 사고 차량 운전자의 상태를 점검했다. 그러나 사고 현장을 뒤늦게 발견한 승합차와 관광버스, 25트럭이 연쇄추돌하면서 이 목사는 사고 차량 사이에 끼여 사망하는 변을 당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나원침 (7522) 김장동



박희현 전 해남군수 징역 4년 확정

대법원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인사 청탁을 받고 부하직원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박희현 전 해남군수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4천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박 전 군수는 재직 중이던 2006년 1~11월 자택에서 부인 최씨와 함께 군청 소속 부하직원 7명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1억2천만원을, 또 전북농업직업 협회로부터 보조금사업 지원 부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

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군수가 한 6급 공무원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부분을 무죄로 보고 징역 4년에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6급 공무원에게 3천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추가로 무죄를 인정해 징역 4년에 추징금 4천2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아울러 부인 최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4천20만원을 확정했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다 좋은 건국 산업단지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제작 및 상담운영

▶ 서울호선 : 02) 3445-0943
▶ 나주광안 : 061) 337-0571

야생 고라니, 도심 미트서 샴주 '남남'



야생 고라니(사진)가 광주시내 한 마트 안까지 들어와 119 구급대가 출동하는 등 한바탕 소동.

○2일 광주동부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밤 9시44분께 광주시 동구 동명동 C마트에 몸길이 70cm 가량의 고라니 수컷이 출현해 진열대에 있던 상추 등을 먹는 등 15분여 동안 머물렀다는 것.

○갑작스럽게 출현한 고라니를 보고 놀란 마트 주인 고모(32)씨는 119에 신고를 했고, 이 고라니를 포획한 구급대원들은 고라니를 안전하게 보호한 뒤 다음날 무등산 4수원지 인근에서 야생으로 방생.

○박정주 동부소방서 구급대원은 “고라니가 먹이를 찾기 위해 산에서 내려왔다가 차량을 피해 마트까지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 /인원기자 ahj@



전주고 광주대학교 정의평화위원회 소속 사제와 수녀 등 성직자들이 2일 오전 광주시 동구 가톨릭센터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 철회와 미국과의 재협상을 촉구하는 시국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종교계·원로 시국선언 잇따라 기아차 쇠고기 반발 잔업 거부 고시 무효 헌소 8만여명 몰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주장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 종교계와 각계 원로들이 시국선언을 통해 정부를 성토하고 나섰다.

전주고 광주대학교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김재학 신부)는 2일 광주시 동구 가톨릭 센터에서 성명서를 내고 “80년 5월, 6월 항쟁 등 항쟁의 중심지였던 이 자리에서 다시 또 시국선언을 해야 한다는 게 서글프다”며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

를 철회하고 미국과 재협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지역 5개 불교 단체도 지난달 26일 동구 불교교육원에서 쇠고기 재협상 촉구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31일부터는 기도회를 갖고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또 광주시기독교단협의회(회장 강상원 목사)는 “이번 주 정부 고시 관련 후속 추진 상황을 지켜보고 다음 주 중으로 시국선언문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광주지회

(지회장 손태웅)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지회에 의거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3일 오후 5시 30분부터 2시간동안 잔업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백낙청 전 서울대교수,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최병모 변호사 등 시민·사회단체 인사 100명은 2일 한미 쇠고기 수입과 대우하 건설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이명박 정부 출

법 100일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통해 “대통령과 정부가 현 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쇠고기 재협상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쇠고기 고시 무효’를 주장하는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에 2일 현재 8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몰렸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헌법소원을 오는 5일 제출할 예정이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주) 조이트레블

대표 전화 (내선) 234-3222

▶ **일본 - 3박 4일**

기다라(대우) 299,000

▶ **중국 - 3박 4일**

399,000

▶ **대만 - 3박 4일**

429,000

▶ **유럽 - 3박 4일**

549,000 (내선) 459,000

▶ **대만 - 3박 4일**

279,000

▶ **북경 / 만리장성 329,000**

▶ **북경 / 만리장성 369,000**

▶ **북경(동북대학생) 무제한코스 399,000**

▶ **상해 / 항주 / 황산차 469,000**

▶ **상해 / 항주 / 황산차 499,000**

▶ **정사 / 장가계 / 천가계 549,000**

▶ **상해 / 항주 / 단동 629,000**

▶ **1박 2일 - 8일 1,890,000**

▶ **간이대리일주 - 6일 1,890,000**

▶ **제주도 장가계 패키지 3일 239,000**

▶ **미국비자 629,000**

▶ **중국비자 629,000**

▶ **비자담당처 문의 : 062-233-5900**